

달라이라마 방한 다시 추진된다

추진위 7월 5일 조계사서 발족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준비위원장 금강)가 오는 7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족한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추진회는 생명존중과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한을 위해 결집한 순수 신행모임”이라며 “오는 7월 5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포식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추진회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생명존중과 평화수호의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켜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종교와 정파를 초월한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해 국민적 고통을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회 준비위원장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이, 집행위원장은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이 맡았다. 준비위원에는 현각 스님(월주 성불원) 진옥 스님(여주 석천사)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정목 스님(서울 정각사) 등 20여 명의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님의 침묵’ 증도가인가, 애민의 노래인가

만해 열반 70주년에 살펴본 ‘님의 침묵’ 전면 해설서

한 시인이 쓴 시(時作)의 전편을 해석하는 것은 시인에게도 주해하는 이에게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 문단을 통틀어 전편 해설서가 나온 시인은 김소월, 정지용, 백석, 이육사, 만해 한용운 스님 등 정도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은 문학계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 지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지 않다.

1970년대 송옥의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이 발간된 이래 30년간 전편 해설서는 나오지 않았다.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30년이 지난 후부터다.

박현수 경북대 국문과 교수는 시 전문 월간지<유심>제68호(2013년 12월)에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박 교수가 주목한 해설서는 송옥의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전편해설(1974)>을 비롯해 김광원의 <님의 침묵과 선의 세계(2008)>, 김용직의 <님의 침묵 총체적 분석연구: 한용운의 시, 새롭게 읽기(2010)>, 정효구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전편 다시 읽기(2013)>다.

박 교수는 송옥은 <님의 침묵>을 증도가로 보고 있다고 소개한다. 실제 송옥은 “<님의 침묵>은 전체로서 하나의 증도가를 이루고 있다”면서 “만해의 시집은 사랑의 시이기도 하나, 우리는 이를 ‘사랑의 증도가’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그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간화하고 역사화 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0년 이후 전편 해설을 시도한 김광원은 그 뜻을 좇혀 <님의 침묵>을 만해 스님이 저술한 <심현담주해>라는 저서의 구조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옥의 해설과 김광원의 비교한 박 교수는 “송옥의 해설이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것의 사회화, 역사화라는 부분을 인정해 ‘님’이 불교적 진리뿐만 아니라 애정의 대상, 잃어버린 조국 등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면서 “김광원의 해석은 오직 불교적 진리, 그것도 <심현담주해>의 세계로만 그 뜻을 좇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옥·정효구 등 해설서 5권 나와

‘님의 침묵’ 불교적 해석이 주류

김용직은 작품 자체 자율성 주목

“영웅·종교적 사랑의 발현” 주장도

반면 <님의 침묵>은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구도에서 탈피한 해설도 있다. 바로 김용직의 해설서다. 박 교수는 김용직의 해

설서에 대해 “사상의 매개로만 읽는 관점에 경각심을 주어 그 시집을 하나의 완결된 미적 구조물로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마디로 김용직의 해설은 작가의 사상보다는 문학 작품의 자율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근작인 정효구의 해설서는 다시 불교를 주목한다. 정효구는 해설서를 통해 <님의 침묵>을 불교 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효구는 “이 시집은 예술가로서의 단순한 예술행위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불교 수행자로서의 폭넓은 수도 및 수행과정의 한 부분이고, 개인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세속인의 자기표현 행위라기보다 견성(見性)한 자의 성불(成佛)을 위한 원력(願力)의 결과물”이라고 기술했다.

세 권의 전편 해설서를 정리한 박 교수는 현상을 근원에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님의 침묵>의 님의 개념을 다양한 차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다양하게 분기된 현실의 축에서 초월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점 때문에 한용운의 시는 현상을 궁극의 근원으로 두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중인 경희대 후마나티스 칼리지 교수가 쓴 <님의 침묵> 평설집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2008)>도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던진다. 김 교수는 “‘님의 침묵’의 전체 기조로 볼 때 에로티시즘이 영웅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으로 승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파격적이지만 원시와 현대어로 옮긴 시, 그리고 기존의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시 그 자체로 접근한 저자의 해석은 눈여겨 볼만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과 종교는 겪어봐야 안다

KCRP, ‘이웃종교스테이’ 진행

이웃종교화합주간을 맞아 이웃종교 성지 및 수도원 등에서 해당 종교를 체험해보는 이웃종교스테이가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는 2박 3일 스테이를 통해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마련했다.

1회차로 7월 4일에는 전북 완주에 위치한 천호성지에서 천주교 스테이가 열린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이어 매주 금요일마다 개신교(서울, 강화, 7월 11~13일), 천도교(전북 부안 호암수도원, 7월 18~20일), 원불교(전남 영광 영산성지, 7월 25~27일), 유교(충북 청주향교, 8월 1일~3일), 조계종(강화 전등사, 8월 15일~17일)이 차례로 종단별 스테이를 운영한다.

조계종은 ‘산사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스테이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회당 40명이 정원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www.harmonyweek.kr)

배현진 기자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위치 아닌 동력이 문제

정진단 23일 조계사 경내 이동 ... 세월호 참회 기도 병행

릴레이 기도·자율 정진 함께

폐쇄아닌 열린 기도처 지향

특정 단체 의존한 정진 한계

대부분 재가자... 스님은 ‘無’

이동만으로 활성화 기대 어려워

동력 활성화와 아이템 발굴 절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됐던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이 경내 사적비 옆으로 이동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위치 이동과 함께 세월호 참사 추모와 참회 기도를 병행해 대중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진에 대한 내부 동력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결사추진본부는 6월 24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생명평화결사 1000일 정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진단을 일주문에서 조계사 경내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은 1000일 정진에 대한 본부

장도법 스님의 총무원장 보고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자승 스님은 정진단의 이동을 부실장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번에 걸친 부실장 간담회가 진행돼 정진단 이동에 합의했고, 6월 23일 경내 이동을 진행한 것이다.

총괄부장 덕신 스님은 “정진단이 일주문에 위치해 각종 안전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회향을 18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낮아진 동력을 활성화시켜 1000일 정진을 안정적이고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동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명평화 1000일 기도와 함께 세월호 참회 기도도 이뤄질 것”이라며 “12시간 릴레이를 바탕으로 기도단을 개방해 자율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폐쇄적 기도 공간이 아닌 열린 기도처를 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1000일 정진의 위치 이동은 낮아진 정진 동력을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실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5월 이후 동참률은 매우 낮다. 결사추진본부가 집계한 5월 이후 정진 동참률은 70% 정도로 6월 한달만으로 국한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6월 23일 조계사 사적비 옆으로 이동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6월 6일 경우에는 1명(1시간)이, 6월 10일에는 3명(총 3시간)의 동참 예약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동참자들도 특정 사찰과 포교단체, 중앙총무기관 재가 총무원들이었다. 부실장, 국장급 교역직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다시 말해 정진에 대한 내·외부의 동력이 모두 상실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단 이동이 1000일 정진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800여 일동안 정진을 진행했음

에도 대중과 중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의 중요한 기조”라면서 “내부부터 정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오는 12월 22일 회향한다. 위치 이동과 함께 낮아진 정진 동력을 회복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성민 기자

한일불교 탈핵 논하다

7월 3일 공동 세미나 개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일본 불교계와 공조해 7월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활동에 주력해온 단체다.

세미나에서는 김익중 교수(동국대 교수, 환경위원회 위원)가 ‘왜 탈핵인가’를 주제로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최원형 소장(불교생태론센터 연구소 소장) 역시 ‘기후변화와 탈핵, 그리고 녹색불교’를 주제로 불교계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소개한다.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에서는 히데히토 오키치 스님이 ‘후쿠시마 상황과 일본불교의 탈핵운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히데히토 오키치 스님은 20년 넘게 활동해온 탈핵운동가이며 자신의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어 양측간 한일불교 탈핵운동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